



# 함께 모여 대보름날 강강수월래

## 도립국악원, 정월대보름 맞아 내달 1일 세시풍속·국악공연

전북도립국악원은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한 해 액을 막고 복을 받았던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공연으로 되새긴다.

오는 3월 1일 오후 5시 부안문화원 야외마당에서 진행될 '복 터졌네! 복 받으란 말이요!' 예선 국악공연과 함께 강강수월래, 달집태우기 등 다채로운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을 선보인다.

공연의 첫 무대는 관현악단의 국악합주로 들려주는 '아리랑연곡'. 이 곡은 관객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재편곡하여 도라지, 아리랑 등 우리나라 토속민요로 색다른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무대에선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아낸 '배 띄워라! 소금장수, 신사랑기' 국악가요와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신뱃놀이' 연주를 역동적인 리듬으로 만날 수 있다. 심봉사가 광씨부인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 적막한 집에서 우는 아기를 달래는 모습을 애절하게 묘사한 '심청가'의 한 대목도 감상할 수 있다.

공연과 함께 정월대보름의 정취도 선사한다. 정월대보름에 달을 맞이하는 우리의 풍속을 노랫가락으로 엮은 '달맞이 가세, 자진육자배기, 개고리타령' 민요를 관객과 함께 부르며, 복의 향연인 '다·풍·놀이'도 펼쳐 보인다.

복맞이 행사도 마련된다. 축원문 낭독을 시작으로 황금 개띠해 행운과 기운을 함께 받아 가라는 소원 소지를 담고, 도민들의 염원을 실어 달집을 태우며 지난 한 해 온갖 액운과 나쁜 것들을 잊고 새로운 희망을 기원한다. 모두가 하나 되는 대동함마당 '강강수월래'로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태근 원장은 "정월대보름공연은 무술년을 맞은 도민여러분들과 함께 액운을 막고, 희망찬 한해를 맞이하는 뜻 깊은 공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달집태우기

## 전북문화관광재단, '인생나눔교실' 멘토·튜터 모집

멘토 28일 · 튜터 26일까지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18 인생나눔교실'에 함께할 멘토와 튜터를 모집한다. 인생나눔교실은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문적 소통을 통해 관계를 맺고 그 가치를

상호 공유하게 된다. 멘토는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만 51세부터 만 70세)와 인문·문화예술 분야 종사자·경험자(만 35세부터 만 50세)중 멘토링 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희망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튜터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하

는 매개인력으로 문화·예술분야 사업에서 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멘토와 튜터는 일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연말까지 군부대, 중학교, 지역이동센터, 보호관찰소 등에서 멘토링을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멘토는 28일, 튜터는 오는 26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c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천사는 바이러스

## ▶ 전주 쇼케이스 2월 상영작 '천사는 바이러스'

# 노송동 얼굴없는 천사, 스크린속에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Jeonju Showcase의 2월 상영작으로 김성준 감독의 '천사는 바이러스'를 마련한다. 독립영화관의 'Jeonju Showcase'는 최근 전주 국제영화제 한국경쟁,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 섹션을 통해 상영됐던 한국영화들 가운데 미개봉 신작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상영 후에는 영화를 만든 감독과 배우 등을 초청해 관객과의 대화를 갖는다. '천사는 바이러스'는 매년 12월에 전주 노송동에 나타난다는 얼굴 없는 기부천사의 실화

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기부천사를 취재하겠다는 기자 지훈이 마을에 나타나 주민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의 상당한 분량을 전주에서 촬영해 전주 관객들에게 친숙한 인상을 선사한다. 상영이 끝난 후에는 영화를 연출한 김성준 감독과 지훈 역을 맡은 박성일 배우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 영화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영화는 28일 오후 7시30분에 상영된다. /정해은 기자

## 힘찬 메들리로 새해 새 출발



### 전주시립국악단 올 첫 정기연주회

전주시립국악단이 27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제213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번 '신년음악회'는 국악단의 올해 첫 공연으로 전주시립합창단과의 합동 무대로 꾸며진다. 총 5개로 구성된 공연은 서곡과 국악관현악·합창곡으로 이뤄진 협주곡을 선사한다. 공연의 서곡은 힘찬 새해 시작을 알리기 위해 빠르고 경쾌한 두 곡 메들리로 엮었다. 이어지는 무대는 국내 단소연주 1인자인 이용구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의 단소협연으로 '추산 전용선류 단소산조'의 진수를 들려 줄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공연의 중반부터는 전주시립국악단의 화려한 관현악연주와 전주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펼쳐진다. 그 첫 합동무대의 곡은 우리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인 '아리랑'. 관현악 '아리랑'은 전곡적으로 불리는 민요 아리랑을 테마로 환상곡풍으로 만든 곡이다. 이어 들려줄 최영섭 작곡가의 '그리운 금강산'은 산을 주제로 3곡, 강을 주제로 3곡, 바다를 주제로 3곡을 만든 곡 중 하나. 곡에는 아름다운 금강산을 그리워하는 애절함이 담겨 있다.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할 '신뱃놀이'는 합창과 국악관현악으로 편곡해 우리나라의 신명나는 선율과 흥겨움을 전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